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에센셜

마리아를 만나보세요

마리아는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수줍음을 좀 타요. 수학과 피아노 연주하기를 좋아하죠. 퍼즐 풀기와 물건들을 한데 합치기도 좋아하고요. 언니와 농구를 하는 것도 정말 즐겁다네요.

마리아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사마귀이고요. 그리고 치즈도 좋아해서, 매일 먹을 수도 있대요! 반면,オート밀은 입에 안 맞고, 천둥과 번개는 정말로 싫다네요.

마리아는 컴퓨터를 갖고 놀기를 좋아해요. 코딩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군요. 숲속을 걸으며 멋진 벌레들을 찾아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고요.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수업 중에 호명을 당했는데 답을 모를 때이며, 우스운 소음을 들으면 그만 배꼽이 빠지고 말아요!

마리아는 아빠랑 여동생과 함께 학교까지 걸어다녀요. 수퍼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마리아는 자라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에센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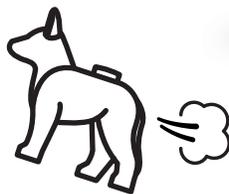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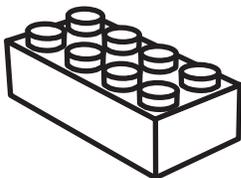
다니엘을 만나보세요

다니엘은 예술적이고 모험적이며 남을 돕기를 잘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미술은 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과목이에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은 녹색이고요.

다니엘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다니엘의 비밀 재능은 30회 연속 뾰뾰돌기를 하고도 어지러움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금치나 뱀을 싫어하는 반면, 개는 정말로 좋아해요. 학교 생활도 재밌지만, 수학을 좀 더 잘했으면 한대네요. 또, 물건 고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이런저런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늘 호기심이 많죠. “노크 노크” 말장난에는 틀림없이 웃음을 터뜨리고요.

다니엘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게 너무 싫대요. 학교에는 버스를 타고 간다네요. 다니엘은 극적인 영웅담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걸 좋아해요. 커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군요.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에센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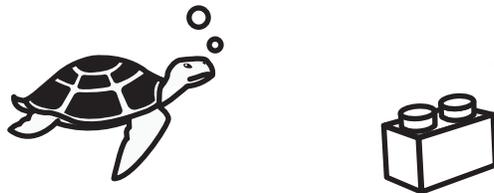
소피를 만나보세요

소피는 재미있고 창의적이면서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수영과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죠. 소피의 목표는 언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에요.

소파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과목은 글쓰기예요.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한 글을 쓰는 걸 특히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이고, 동물 중에서는 거북이가 최고래요.

소파는 여동생이 묻지도 않고 자기 물건을 갖다 쓸 때 가장 화가 난대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재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뒤로 재주넘기랍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방울양배추라네요. 좋아하는 일은 바다 근처에 가는 것이고요. 물고기 종류 이름을 100가지도 넘게 댈 수 있다는데요!

만화는 항상 소피의 웃음 참고예요. 소피는 보라색과 주황색이 섞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요. 자라서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군요.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에센셜

레오를 만나보세요

레오는 늘 행복하고 친절하며 조용한 아이예요. 책읽기를 아주 좋아하죠. 항상 배낭 안에 외계인이나 좀비에 대한 책을 넣어 갖고 다녀요.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데, 나날이 빨라지는 느낌이라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외계인이나 좀비에게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을 거래요.

다만 미술 실력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군요.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에요.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개구리고요. 애완 개구리를 갖는 게 소원인데, 집에 가면 형과 애완 고양이밖에 없다니 안타깝죠.

레오는 자기 키가 너무 작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서 키가 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레오의 비밀 재능은 알파벳을 거꾸로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가지 언어로요. 다만 거미는 정말 무서워요!

레오를 웃기려면 깜짝 놀랄만한 걸 보여 주면 돼요. 학교까지는 엄마가 매일 차로 태워다 주신다네요. 레오는 커서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해요.

